

광양시, 핵심공약 생애복지플랫폼 구축 '박차'

올해 완성 목표...신규정책 68건·내년부터 순차 추진 생애복지 안내서·3대 프로젝트·모바일 앱 등 개발도

광양시가 정인화 광양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완료를 목표로 ▲광양형 신규 복지정책 개발 ▲추진 중인 복지제도 개선 ▲전체 복지정책 생애주기별 체계화 ▲온라인 생애복지플랫폼 구축 ▲생애복지도시 위상 확립 등 생애복지플랫폼 5대

핵심과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갑동시대추진단'은 생애복지플랫폼에 포함할 300개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한 '생애복지안내서(전자책자, e-Book)'를 제작했다. 내년 개정판에는 광양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

는 정책들도 모두 기록해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존의 복지제도 71건을 개선하고 68건의 신규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신규 복지정책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공공심야(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고등학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태아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소상공인 Sunshine 상생금융 지원 등이며 신규 복지정책은 시민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또한 생애복지플랫폼 완성 추진 전략으로 3대 프로젝트를 오는 9월부터 실행한다. 3대 프로젝트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청년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 ▲50·60대 Re-start 프로젝트다. 생애주기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맞춤형 추진 전략을 수립해 생애복지플랫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온라인'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시 모바일 앱(App) ▲1대1 실시간

상담채널 ▲AI 복지상담 챗봇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 모바일 앱은 각종 시정 홍보(PUSH 알림), 복지정책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시민의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광양시는 복지시설 신축-리모델링으로 생애복지플랫폼 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2개소) ▲아이키움센터 확충(2개소)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 건립(110호) ▲창업타

운 공공임대주택 건립(150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윈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광양시는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연내 완성해 평생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 8기 광양시의 목표"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흥군이 오는 27일부터 8월4일까지 장흥 탐진강 및 편백숲우드랜드 일원에서 '제17회 정남진 장흥물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정남진 장흥물축제 워터락 폴퍼티 모습. (정흥군 제공)



(정흥군 제공)

"장흥 물축제서 폴파티 즐겨보자"

핵심 야간 프로그램 '글로벌 워터월드' 선포 멀티 미디어쇼 접목...유명 DJ라인업 구성

장흥군이 무더위를 날려줄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핵심 야간 프로그램 '글로벌 워터월드' 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21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8월4일까지 장흥 탐진강 및 편백숲우드랜드 일원에서 '제17회 정남진 장흥물축제'를 개최한다. 물축제의 핵심 야간 프로그램인 '글로벌 워터월드'는 기

존 워터락 폴파티에 멀티 미디어쇼를 새롭게 접목했다. 폴파티장 양쪽을 막아 물입형 공간을 만들고, 화려한 미디어 영상 쇼와 함께 폴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로벌 워터월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물축제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급 폴파티지만 입장료가 없고, 유

명 DJ들이 라인업을 구성한 것이 인기 비결이다. 관광객들은 무대 위의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댄스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장흥 물축제가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된 것도 워터락 폴파티의 덕이 크다. 올해는 뉴진스, 주주, 푸른, 우리, 뮤즈, 배기 등 유명 DJ가 물축제의 시원한 여름밤 속으로 안내한다. 지난해 3차례에 그쳤던 폴파티는 올해부터 28일부터 8월3일까지 모두 7번, 오후 9시에 펼쳐진다.

축제 기간 중 31일과 8월1일 오후 4시에는 국내 정상급 락스타와 함께하는 '장흥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락 페스티벌에는 윤도현밴드, 국카스텐, 내귀에도청장치, 크라이넛, 캐치더영, 맥거핀, 트랜스픽션, 스킵잭 등 정상급 락스타가 출연한다. 장흥 물축제 개막 축하공연은 27일 오후 7시30분에 트리플에스, 포레스텔라, 기리보이, 키드말라 등의 출연진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축제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체험을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라며 "장흥 물축제에 와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구례군, 나들이 워터파크 시범 운영

내달 1-20일 나들이 장터 부지...내년 7월부터 정상 운영

구례군은 21일 "오는 8월1일부터 20일까지 나들이 워터파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나들이 장터 부지 안에 1천550㎡ 규모의 나들이 워터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착공했으며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이다.



구례군에 의해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7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나들이 워터파크에서 유희를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히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멋진 추억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침체된 산동 온천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례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 나들이 워터파크와 더불어 산수유 미로공원, 산수유 사랑공원, 관광탐, 지리산 온천 CC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군, 16개 업소 착한가게 단체가입식

매일 매출 일정액 정기 기부 참여

담양군은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담양군청에서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착한가게란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일 매출액의 일정액(최소 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으로, 이번 단체가입식에 16개 업소가 참여하면서 담양군 착한가게는 25개가 됐다. /담양=정승근 기자

신규 가입 착한가게는 고흥식당, 꾸미담담클래스, 담양양양보호사교육원, 담양제일장례식장, 담양청과, 푼방국수, 매화식당, 박기네 식당, 백제회관, 복돼지숯불갈비, 삼거리농원, 삼보식당, 카페미, 하늘가득, 한재골장어, 현대자동차서비스 담양점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웃을 위해 나서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며 "착한가게에서 시작된 나눔의 물결이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하반기 첫 본회의 개최

2회 추경안 제안 설명·예산 결산 등 안건 처리

여수시의회는 21일 "지난 19일 제8대 의회 하반기 첫 회기인 제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사·보임의 건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사·보임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4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여수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결혼 장려 정책 ▲유소년 축구단 활성화 ▲여수

시 홍보관리 운영 문제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주제로 제안을 내놨다. 백인숙 의장은 첫 회차에서 "전반기에 축적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며 "후반기 의장으로서 여수시의회를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로 시민과 늘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의회-사천시의회, 우주산업 교류 협력

郡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방문...제도적 기반 지원 약속

고흥군의회는 21일 "지난 18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사천시의회 방문단 일행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우주산업 육성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천시의회 방문단 일행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우주항공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는 고흥군의 우주산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방문했다. 김규현 사천시의회의장은 "이번 계기로 우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면 양 지역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사천시의회의장은 "이번 방문은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의회간 정기적인 교류협력과 소통으로 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는 핵심사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정책특별법 국회 통

과 후, 지난 5월27일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위성 개발·제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날 양 의회는 우주산업 육성이라는 공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의회 차원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도적 기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류제동 고흥군의회의장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우주산업 발전에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계기로 우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면 양 지역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사천시의회의장은 "이번 방문은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의회간 정기적인 교류협력과 소통으로 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는 핵심사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정책특별법 국회 통

'순천 장천동 한 달 살기' 청년인구 유입 성과

참여 청년 취업으로 지역 정착...오는 10월 재추진도

순천시는 21일 "지난 5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 '장천동 한 달 살기 장천유월(遊月)의 꿈-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이 순천시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7일부터 6월21일까지 이뤄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사진)엔 총 9명이 참가했다. 이들 중 2명은 순천시에 일자리를 갖게 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장천유월(遊月)의 꿈-새로운 시작'은 순천시 장천동 터미널 일원의 관계

인구 증대와 지역 정착 연계를 목표로 한 달 동안 진행된 순천형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은 순천에서 자신만의 리주얼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어, 주말 필드 트립, 맥주 제조 체험, 캠핑, 정원 연계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순천시 역사와 문화를 경험했다. 순천시는 청년 인구유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에도 장천동 한 달 살



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순천에 애정과 기대를 갖게 되면서 정착하는 청년들이 나와 기쁘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순천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